야호! 멋진인생

로큰롤밴드 멋진인생 스페셜

멋진인생 앨범에 즈음하여…

바야흐로 1920년대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3.1운동에 놀란 일본은 조선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문화 통치를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때 조선인들 누구나 즐기던 록근얼을 일본이 문화개혁을 통해 없애기 시작하는데 1923년 入隊 박상권 선생께서 문화가 사라지는 모습에 슬퍼하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 몰라도 2년 후에는 내가 다시 우리의 문화를 찾아올 것이다." 하며 미국으로 망명했다.

1923년 8월 7일 박상권 선생은 시카고에서 조선 문화를 알리기 위해 술집에서 기타를 치며 늘 이런 말을 했다.

"내 재주를 한번 들어보소"

이게 바로 미국 재즈의 시작이었다. 그는 조선의 한글과 조선의 록근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늘 한글로 대화하였고 음악으로 소통했다고 전해진다.

록근얼을 찾는 미국인들은 너무나 많았다. 2년 뒤에 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선생은 시카고 주민들의 눈물 어린 '재주'의 간증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내 비록 몸은 조국과 떨어져 있을지언정 내 피는 조선이오, 내 마음도 조선이오, 내 심장도 조선이라네"

20여 년간 모든 재즈 음반의 기타를 연주하던 박상권 선생은 수많은 걸출한 제자 중 하나 루이 암스트롱에게 말했다.



"이암아, 너는 재주를 무어라 생각하느냐?"
루이암은 답했다.
"기술이 아닙니까?"
박상권 선생이 말했다.

"아니다. 조국을 잃은 슬픔이니라"

루이암도 같은 심정을 느꼈으리라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 못하는 그 고향을

1945년 8월 15일
하루가 매일 같던, 마음 깊이 웃어본 적, 울어본 적 없던 박상권 선생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한독립 만세…"

조국에 대한 사랑이란 이런 걸까,
오늘날에도 그의 혼을 기타에 담으며.

재규어 밤의 찬가

나는 먼저 갑니다
그대 곁에 꿈을 두고
가버립니다
매정하다 하지 마오
어쩔 수 없다오
나란 사람
기억만 해주오



4인조 로큰롤 밴드 멋진인생 @스트레인지프릇
왼쪽부터 이기학 고재현 이주현 박상권

Oh! Deborah

From the cold night air
those warmly wet
eyes of yours
I haven't forgot

By the scarlet light of sunset
those deeply dyed
dreams of yours
I haven't forgot

Of where you are going then
I don't know anything
to meet you again someday
I wait

From the cold night air
those warmly wet
eyes of yours
I won't forget

Of where you are going then
I don't know anything
to meet you again someday
I wait

From the cold night air
those warmly wet
eyes of yours
I won't forget

Awesome Life
번역 : 마크브라질

아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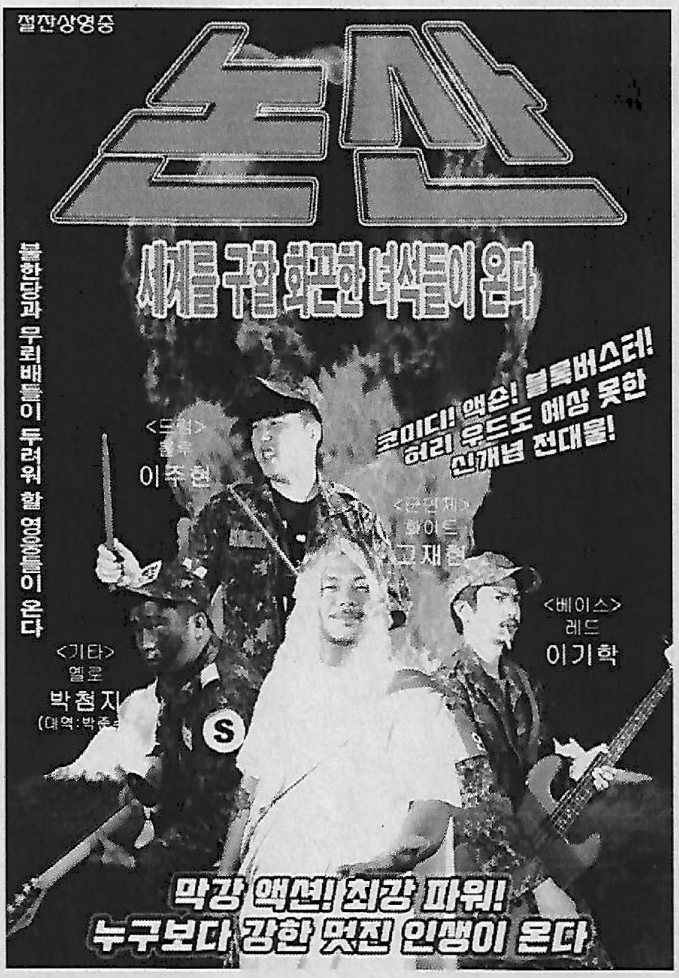
어쩐지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 느린 것 같아
같은 길만 하염 없이
나는 걸어가는가
걷다보니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두고 온건가
아 맞다 널 두고왔다

어떡하다보니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어찌된일인지 아무런
짐작 조차 없는데
걷다보니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두고 온건가
아 맞다 널 두고왔다
예

사랑이란 이런걸까

쟁반짜장을 시켰는데
일반짜장이 왔네
사랑이란 이런걸까

쟁반짜장을 시켰는데
쟁반짜장이 왔네
사랑이란 이런걸까



호국의 요람 논산 올로케 뮤직비디오 <논산>
원제 북침에서 논산으로 변경 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작의
뒷 이야기가 **7면으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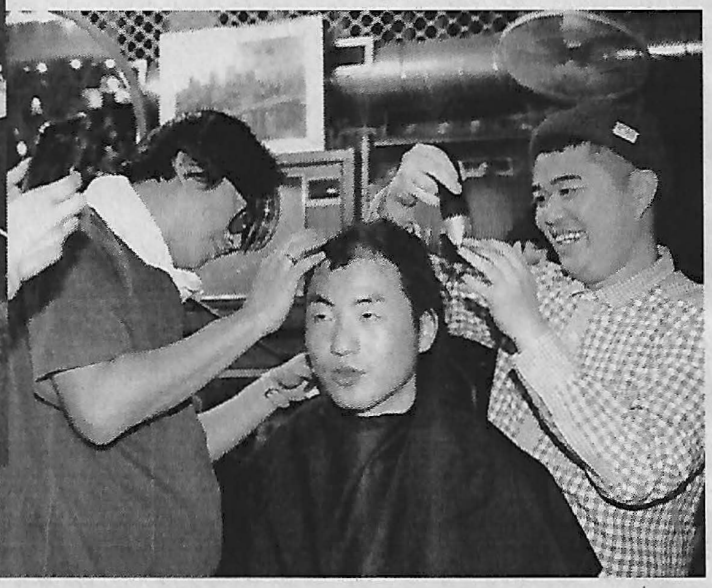
[커버스토리] 로큰롤밴드 멋진인생의 키타주자 박상권 또는 박첨지

"키타!키타!키타! 첨지군대 고고!고고!고고!고고!
2019년!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軍입대를 성취한 기념공연!"



"형, 1월 1일 땡치면 입대하고 싶어요, 그냥…"

첨지의 소망이 국방부에 닿았다!
예수님도 축하해주는 크리스마스이브의 입대
어찌 그냥 넘어갈쏘냐!
기라성 같은 동네 형들이 곱창전골에서 함께 모여 축하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한 2020년. 최전선에서 극비 임무를 수행한 박상권은 2021년 7월 7일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바다에 어허라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역병이 왔네 역병이 왔네
우한 너머로 어허라얼싸 역병이 돈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백일이 왔네 백일이 왔네
신병 위로라 휴가를 받고 휴가 짤렸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아요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장군이 왔네 장군이 왔네
역병에 힘들까봐 훈시를 왔네
산을 보셨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그놈은 멋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놈은 멋있었다?'** 리포터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프린지와 전기흐른의 기타리스트 류호건 씨를 만나보게 됐는데요.



주현: 캠핑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얼마 전에 스트링 매듭법까지 마스터해서 캠핑 고수가 되었습니다.
주현: 그러면 혹시 맥에도 부트캠프를 설치하셨나요?
패러렐 씁니다.
주현: 골수 캠핑족은 아니시네요ㅎㅎ
캠핑 가면 잠도 잘 못 자긴 합니다.
주현: 어디 류 씨인가요? 류 씨랑 유 씨랑 뭐가 다른가요?
문화 류 씨입니다. 파마다 류로 쓰기도 하고 유로 쓰기도 합니다. 어른들 일.
주현: 혹시 유씨씨도 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주현: 미국에 성함이 같은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미국 호건이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우면서도 정이 갑니다.
주현: 두 달 뒤의 류호건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멋진 인생을 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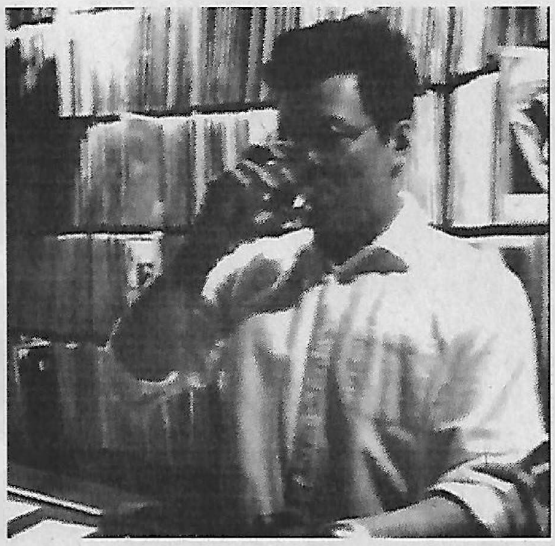
이상 리포터 **이주현**이였습니다. 야호!



문화 류씨 (文化 柳氏)
가문의 문장



난닝구를 찢고 있는 미국 호건



최악과 최고의 순간을 디깅하여 소개하는
베스트 워스트 쟈키 고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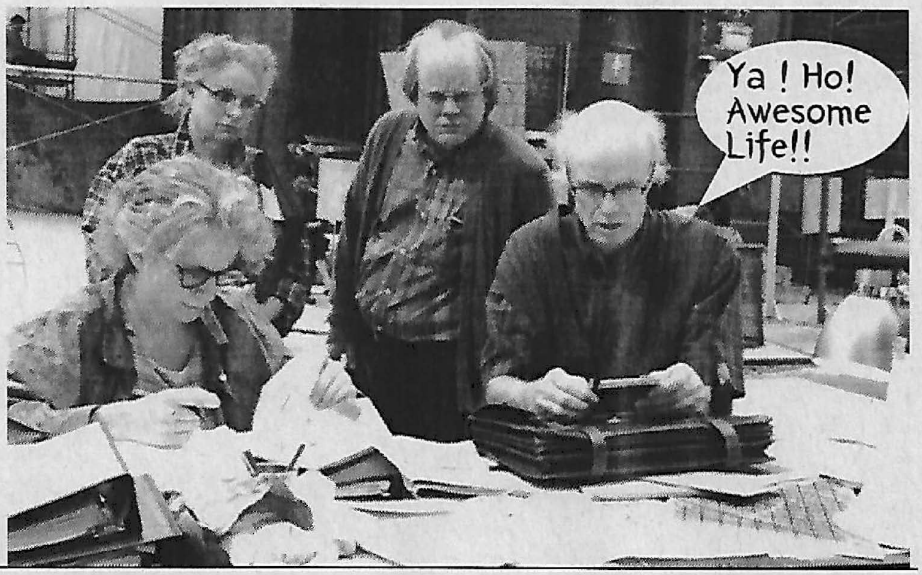
고재현의 베스트 워스트_영화 편

베스트 〈시네도키, 뉴욕〉

연출, 음악, 연기 등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영화.
특히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연기가 압권 다들 괴물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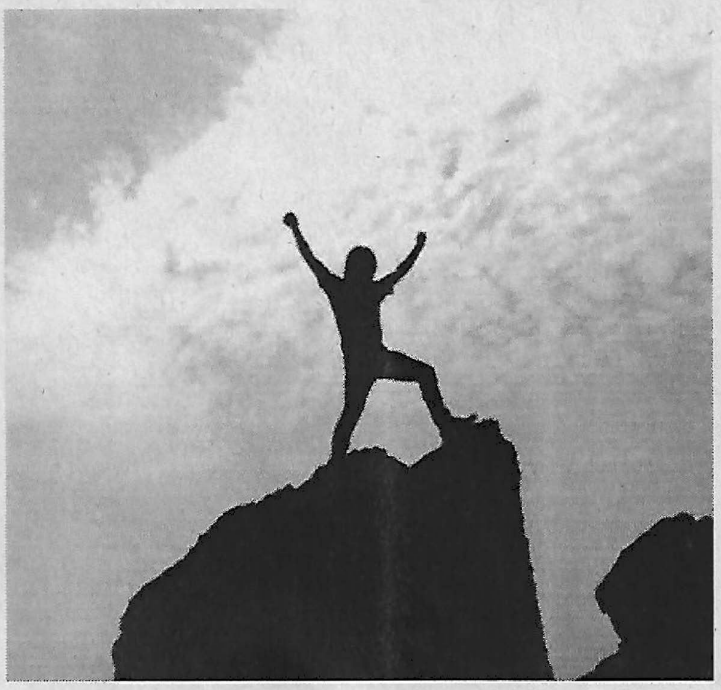
워스트 〈모범경찰 싱감〉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앓았다. 위궤양을.
그리고 알았다: 후회라는걸..
이 영화를 보고싶다면 꼭 양배추즙을 옆에 두고 보는걸 추천한다.



시네도키, 뉴욕
개봉 2008. 5. 23
장르 드라마, 코미디
국가 미국
감독 찰리 카프먼
주연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캐서린 키너

우주로부터의 메세지



항상 그러했듯 지구의 중력에 영혼까지 묶여 버린 지구인들에게 머나먼 우주 저편의 외계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전하온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은 8비트 로큰롤을 주로 연주하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일깨우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4인조 로큰롤 그룹사운드 멋진인생의 무대는 100% 사람의 힘 즉 육체노동으로 공들여 연주를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전자비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드는 리듬을 따라 몸을 흔들 수 있게 된다.

공연의 주된 악기인 일렉트릭 기타는 머나먼 우주로부터의 에너지를 기타 픽업으로 수신하여 앰프로 증폭시키면서 발생하는 우주 본연의 거친 외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그 소리를 인간이 흡수하게 되면 온몸에 로큰롤의 비트가 퍼져 세포는 활성화되고 혈액은 순환하여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처음이라면 청력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귀마개를 준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시간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100%를 느끼는 것을 추천한다.

글쓴이 / 이주현 <고양시, 44세 남>

뉴스!

다양한 뮤지션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각기 다른 여덟 공간에서 공연 실황과 다큐멘터리로 담아내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추억과 행복을 선사했던 '언더그라운드 아카이브'

오랜 시간 음악가들의 사랑방 스트레인지 프룻, 을지로의 젊은 대안 공간 안철순 등 코로나로 인해 멈춰졌던 음악 공간을 재조명하고 그 안에 얽힌 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어 진정성 있는 음악 다큐멘터리로 평가 받았다.

또한 이희문, 까데호, 김오키 뻐킹 메드니스빅픽쳐 등 코로나로 인해 좀처럼 공연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뮤지션들도 '언더그라운드 아카이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언더그라운드 아카이브'를 기획 및 제작, 운영한 '영롱'은 뮤지션, 공간과의 두터운 신뢰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입혀내어 오직 '언더그라운드 아카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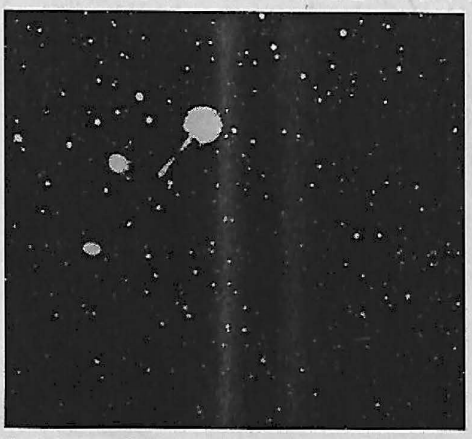
공연 실황 8회, 다큐멘터리 8회, 총 16회를 매회차 다른 컨셉으로 구성하여 보는 재미를 더한 '언더그라운드 아카이브'는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볼 수 있다.

에디터 / 박아인



<숨은 그림> 양배추 구두 도끼 백상아리 돛단배

신보소식 젊은 지성의 요람 채널1969에서의 공연 실황을 생생하게 담은 **갤럭시익스프레스**의 콜럽 라이브 앨범이 발매되었다. 요새 보기 드문 라이브 실황 앨범으로 100% 원큐에 녹음하여 날것의 질감을 실시간으로 담았다. 살아 펄떡이는 생음악에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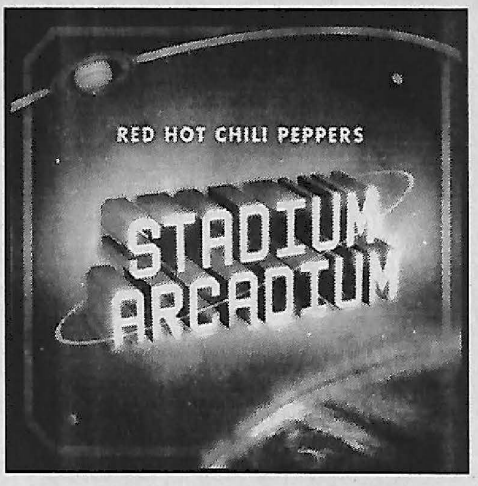


정가 : 이만원 — 50장 한정
판매처 : 채널1969

공드린 라구 떡볶이 & 누들
오직 신선한 자연재료만으로
공들여 만드는 **라구 소스**
양고기라구떡볶이 (2~3인분) 17,000원
라구우동 10,000원 / 라구소스 6,000원
모래내 시장통
주문은 쿠팡이츠

후루꾸 상담실

안녕하세요, 진촌리 삼죽면에 사는 35살 김봉수입니다.
저는 김치공장에 다니면서 하루 2교대로 밤낮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처음 봤던 건 점심시간이였습니다. 늘 치즈 돈까스를 먹던 그녀, 그녀의 이름은 지니였어요.
사랑스러운 그녀, 짧은 머리 그녀, 청바지의 어여쁜 아가씨는 언제부턴가 저와 돈까스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동거를 하면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평생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때, 악성 김칫국물이 제 왼쪽 눈에 튀어 실명 판정을 받았고 그녀를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을 때 그녀는 제게 내가 평생 너의 왼쪽 눈이 되어 주겠다 했고 우리는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이 되어주겠다는 사랑은 언제부턴가 집착이 되어왔고 갈대 같던 그녀의 마음은 어느 허름한 Bar의 고독한 DJ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던 점심의 치즈 돈까스는 이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저는 제육볶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맵고, 짜고, 달고... 나는 어찌 이 짜릿한 것을 모른 체 살아 왔던 걸까요?



Red Hot Chili Peppers

국적 미국
남성 그룹
록/메탈
데뷔 1984 1집 Red Hot Chili Peppers
결성일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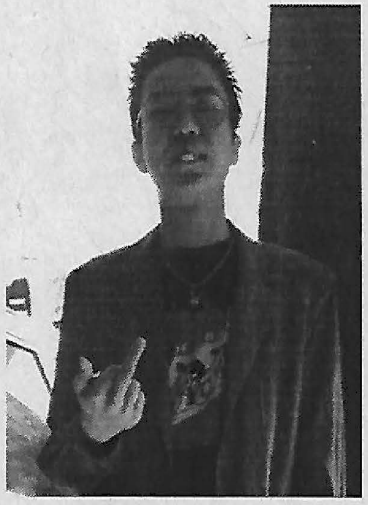
이기철> 치즈 돈까스는 이제 잊으세요!
새로운 붉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텔미베이비~~~

상담 환영

고민이 있다면 후루꾸 상담실로
사연 보내주세요
해결사 이기철이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제보처: 인스타그램
@used__boy



멋진인생
멋진인생을 삽시다
멋진인생이라 함은
건강한 몸과 마음
불타는 사랑과 고요한 평화
우리 강산 아름다운 강산
시퍼렇게 퍼렇게

후루꾸

안녕하세요, 결혼 18년 차 남편 이석재입니다.
제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그녀와 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쥐꼬리만 한 월급에 주는 건 먹지도 않는다며 18년간 타박을 해왔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자식도 없었고 제 유일한 행복은 퇴근길에 가는 회사 앞 포장마차가 전부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상사는 꼰대라며 함께하지 않구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침마다 주던 맛없는 콩밥은 웬일인지 흰쌀밥이 있었고 마누라는 동창회가 있다며 저녁은 알아서 해 먹으라고 하더군요.
세상 모르게 마누라 없이 지내던 하루 웬걸 리모컨 옆에 편지가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손을 부들부들 떨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거에요.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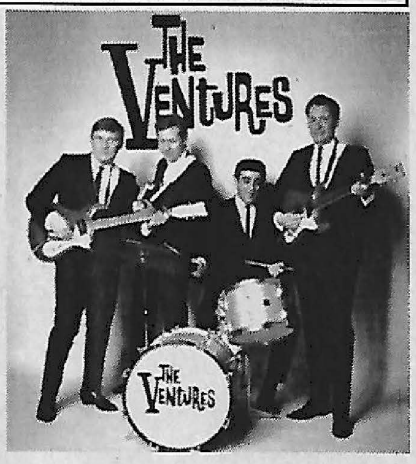
앗싸! 마누라 집나갔네!

이기철> 저런.. 슬픈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분이 집 나간 거에 대해 감동하고 계시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세요!

벤쳐스의 와이프 아웃!

The Ventures

국적 미국
남성 그룹
록/메탈, 로큰롤
데뷔
1959 Walk Don't Run
결성일 1958





2015년 한 청년이 군대를 가기 위해 공군에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물었다.
"올해 광복 몇 주년 입니까?"
그는 긴급히 머릿속으로 계산해 70주년이라고 말했다.
그의 대답에 만족한 면접관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했다.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는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다.
"북침이요!!"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밴드 멤버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했다.
군대를 다녀온 멤버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놀려댔는데,
그것도 잠시 시무룩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 그들은 음악으로 전쟁을 하기로 선포했다.
'북침'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북침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북한을 쳐들어간 기분이 드는걸?"
라며 흡족해했다.
그들은 뮤지션 리그에 업로드를 하여 데모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전 전쟁 사진과 비범한 말귀들로 이 음악을 표현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 같았다.

문제작 '논산'

2면에서 이어집니다

멈출 줄 모르던 그들의 사기는 단 한 멤버의 어머니로부터 좌절된다.
"너 사상이 불건전하구나!"
"국정원에서 잡아간다!"
그들의 위트를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 그래도 효자인 척이라도 하고 싶던 그 멤버는 다른 멤버들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했다.
"우리... 논산으로 하지 않을래?"



'논산' 뮤직비디오



MUSIC CARD ?????

7월 중 공개예정

옛날 옛적, 중국 고대 도가(道家)사상가 장자의 한 일화

옛날 말씀

장자의 처가 죽자 혜시가 조상(弔喪(장례))하러 갔다. 장자는 그때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신나게 동이를 두드리면서 목청껏 노래하고 있었다. 그를 본 혜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부인과 함께 살아왔고, 자식을 길렀으며, 함께 늙지 않았는가? 그런 부인이 죽었는데 통곡은 못 할 망정,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네! 내 부인이 처음 죽었을 때야 나라고 어찌 슬픈 느낌이 없었겠나? 그러나 그녀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본시 삶이 없었던 것이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형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흐리멍덩한 사이에 섞여 있었으나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었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고,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네. 지금은 그가 또 변화하여 본래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세.
이것은 봄, 가을과 겨울, 여름의 사철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변화였던 것이네.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란 거대한 방 속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일세. 그런데도 내가 엉엉하며 그의 죽음을 따라서 통곡을 한다면 스스로 그러한 대자연의 운명을 통달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통곡을 멈추고 북을 치며 노래 부른 것이네! 자네도 함께하세!" 라고 하였더라…



장자 (BC 369년 ~ BC 289년경)
본명: 주(周)
직업: 사상가
분야: 도가
출생: 중국전국시대 송나라

옮긴이 / 박종현 <서대문구, 40세 남>

Channel1969 Live O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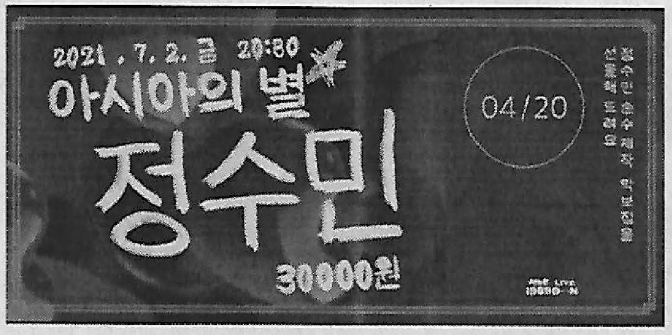
본 신문은 코로나시대에 방역과 만남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연구하여 자구책을 찾아온 [채널1969 라이브온 2021] 대면 공연시리즈 중 '멋진인생' 편의 관련 MD로 기획되었습니다. 2021년의 라이브온은 전격취소로 마무리 되지만 하반기에는 라이브온 시리즈를 유튜브로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야호!멋진인생"은 동네생활정보지로 정식 발행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7회의 공연 매진사례 감사합니다!

-채널1969라이브온 제작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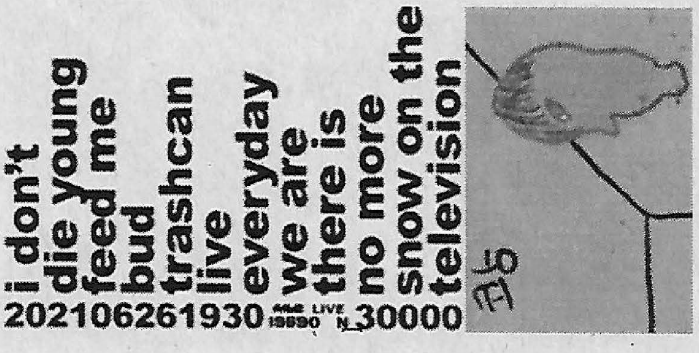












녹음실 타디스
언더그라운드뮤직
라이브공연전문
전화 : 010)2595-6459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투고.제안.제보.광고
park_ain@naver.com

다 읽은 신문지로 감자를 감싸서 보관하면 싹이 나지 않아 좋다더라

비 매 품

구성, 편집 : 박아인 , 안홍인
제작, 발행 : 채널1969

채널 1969